

유네스코 문해교육의 변천 과정 분석을 통한 함의점 연구*

조미경**

요약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CONFINTEA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문해교육의 실시 배경과 각 회의 전후의 논의 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은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의 전개기,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의 발전기의 세단계 태동과 발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세가지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유네스코에서 문해는 국가와 사회발전의 도구에서 점차 평생학습의 필수요소로 변화하였다. 둘째, CONFINTEA를 통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형평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셋째, 유네스코 CONFINTEA는 진실한 대화로 성인문해교육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네스코 문해교육의 변천과정에서 볼 때, 문해는 달성되어야 할 최종의 목표를 넘어서 개인 학습자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과정이며, 학습자가 속한 일상의 생활에서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였다.

주제어 : 유네스코, CONFINTEA, 문해교육, 학습권, 사회적 역량강화

* 본 연구는 조미경(2012)의 박사학위 논문 “유네스코의 비판적 성인문해교육 변천과정 및 동향 분석”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 wipassana@naver.com

I. 들어가며

유네스코는 1945년 창설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비문해 퇴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을 전 세계에 보급했던 기구로서 ‘기초교육(fundamental education)으로서 성인기초문해교육(adult basic literacy education)’의 문제를 지속적 관심사로 상정해왔다.

1963년 유엔 총회에서는 전세계 비문해 퇴치를 위한 문해 캠페인을 채택하였고, 1965년에는 경제발전과 연계하는 기능문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UNESCO, 1965). 계속하여 1975년 Persepolis 선언, Jomtien 모든 이를 위한 세계 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WCEFA: 1990), Hamburg 선언(1997a), Dakar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2000)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최근에는 세계 현황보고(GMR: Global Monitoring Report, 2010) 등에서 핵심 역량으로 문해를 다루고 있다.

문해교육은 평생학습의 원형이자 출발점(이희수, 2005)이다. 평생교육의 종주기구로서 유네스코의 60여년에 걸친 문해와 성인기초교육은 성인문해교육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평생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원형인 성인문해교육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문해교육 변천과정을 세계성인교육회의(CONFINTEA)¹⁾의 보고서와 문해교육 관련 유네스코의 자료를 분석

1) CONFINTEA: Conference Internationale sur L'education des Adultes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세계성인교육회의’, ‘국제성인교육회의’, 혹은 성인교육국제회의로 적고 있다. 1949년 제1차 회의에서는 LA CONFÉRENCE

하였다. 선행연구(Jones, 1988; 이무근, 2001; Lind, 2008)를 참고하여, 유네스코 문해교육 변화과정은 세단계로 나누었다.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의 전개기, 그리고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의 발전기로, 문해교육 실시 배경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역사사회학적 접근으로 문헌분석을 하였다.

II. 유네스코의 문해교육 변천과정

1.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는 유네스코의 창립에서부터 1970년대 의식화 문해의 등장 시기로, 문해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평생교육의 핵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의식화 문해²⁾가 등장하였다.

첫째, 초기 유네스코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

INTERNATIONALE DE L'ÉDUCATION DES ADULTES이었으며, 1960년 제2차 회의에서는 CONFERENCE MONDIALE SUR L'ÉDUCATION DES ADULTES이었다. 1972년 제3차 회의부터 CONFÉRENCE INTERNATIONALE SUR L'ÉDUCATION DES ADULTES로 변화되었으며, CONFINTEA로 명명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CONFINTEA로 한다(조미경, 2012).

- 2) 의식화 문해란 브라질의 교육학자인 Freire(1985)의 주장으로, 의식화를 통한 인간의 해방을 의미한다. 의식화란 억눌린 자들이 '세계의 변혁을 위한 반성'과 '행동'의 실천(praxis)을 통해 억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해방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이 수용자로서가 아니라 지식습득의 주체로서, 그들의 삶을 형성하는 사회문화적 현실과 그 현실을 변혁시키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깊이 자각케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적으로 문해교육을 실시하였다. 유네스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국제사회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서, 기본교육은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일부분이고,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였다(UNESCO, 1997a). 1943년부터 활동하였던 연합국의 교육장관 회의인 CAME(Conference of Allied Ministers of Education)은 유네스코에서 문해교육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모든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다(Jones, 1988). Bodet는 멕시코 교육장관으로서 1944년 “무지와 의 전쟁(war on ignorance)”을, 1946년 Huxley는 “우선, 비문해를 공격하라(First, attack on illiteracy)”를 선포하였다(UNESCO, 1997b).

이러한 배경 하에 성인교육을 논의하는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사회 기반의 파괴와 경제 침체로 인하여, 사회회복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했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집과 의복이 없었으며, 먹을 것이 없고, 비문해자였다(UNESCO, 1947). 세계의 무질서로 흔들린 삶에 대한 희망과 혁신 주기, 특화되고 고립된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 회복하기, 세계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소속감 진작시키기를 제안하였다(UNESCO, 1949).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회, 문화, 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서구 유럽 중심의 성인교육이 대부분 논의되었고, 개발도상국의 비문해 문제는 많이 부각되지 못하였다.

둘째,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발전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서구 국가들로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신생독립국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유네스코는 1959년 카라치 플랜과 1961년 아디스아바바 플랜을 실시하였다.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성인교육(adult education in a changing world)’을 주제로 개최된 1960년 Montreal 회의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적 신분의 변화를 겪는 많은 성인들을 위해 성인교육의 역할과 내용, 성인교육의 방법과 기술, 성인교육의 구조와 조직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Montreal 선언문(Montreal Declaration)을 통해 성인학습이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생존과 직결된 것임을 선언하였다(UNESCO, 1960).

1960년대 초반, 유네스코는 단기간 내에 비문해 퇴치를 논의하였으며 선진국의 지원으로 대량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1961년 UN총회에서는 유네스코의 비문해 퇴치를 위한 건의를 받아들이고, 1963년 총회에서 Maheu의 세계 문해 캠페인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UNESCO, 1997a).

1965년 Teheran에서 비문해 퇴치를 위한 세계교육장관 회의가 개최되었고,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세계문해실험에서 기능문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1965년 Lengrand은 ‘평생교육(l'education permanente)’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970년 ‘세계교육의 해(International Year of Education)’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여져 평생교육으로 제창되었고, 이후 유네스코 교육사업의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되었다(한송희, 2005).

셋째,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은 평생교육의 핵심이 되었다. 우선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반은 전 세계가 동서로 양분되어 이념전쟁을 벌이던 냉전의 시기였다. 전쟁으로부터 서구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으며, 신생 독립국과 개발도상국 또한 경제적 도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제삼세계 국가들의 이러한 개발의 열기는 유네스코에서 목소리를 내게 하였으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이념 전쟁으로 결국, 제3차 회의에 미국과 영국은 참가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김중서 외, 1987).

1972년 Tokyo 회의는 ‘평생교육에서 성인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Montreal 회의 이후의 성인교육을 흐름을 돌아보고, 평생교육적 맥락에서 성인교육의 기능을 숙고하고, 성인교육에 대해 교육 발전전략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안건 7항, 경제와 사회발전의 요소로서의 성인교육에는 문해가 들어 있으며, 각국에서 성인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요소로서, 그리고 평생학습의 핵심(keystone)임을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UNESCO, 1972). Tokyo 선언을 통해 성인들의 비문해 문제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였다. 읽고 쓰기, 셈하기와 그가 속한 사회에서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기능문해를 실시하였다(UNESCO, 1997b). 평생교육을 영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전체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정립하는 한편, 성인교육을 평생교육 체제 속의 불가결의 요소로서 그 지위를 격상시켰다.

넷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의식화 문해의 등장이다. 1975년 개최된 Persepolis회의는 유네스코 문해교육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Rahnema, 1975; Bataille, 1976; 이무근, 2001). 유네스코의 비문해 퇴치를 위한 대량 문해나 프로젝트 등의 노력이 그동안 양적(quantitative)인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반향으로 문해의 질적(qualitative)인 면에서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Persepolis 회의에서는 Freire 등의 영향으로 무엇을 위해 문해가 되어야 하나, 누가 비문해자인가, 글로 적힌 말만 열쇠인가? 등의 반성이 일었다(Rahnema, 1975).

이와 같이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은 태동 당시에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에 기여함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발전각국의 실정에 맞는 성인기초교육으로 문해교육이 논의되었으며, 문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Lengrand에 의해 제시된 평생교육이 세계교육의 위기와 학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재를 위한 학습’의 평생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어 성인교육을 평생교육체제 속의 불가결의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고, 성인들의 비문해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의식화 문해의 등장으로 유네스코 문해교육에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2.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의 전개기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은 초기에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무지와의 전쟁에서 시작되었으며 평생교육의 핵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후 세계 경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Montreal 선언으로 문해를 위한 논의와 실천을 이어가게 되었다. 학습권 선언 이후의 문해교육은 다음 두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기초 인권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이 논의되었다. 1980년대의 세계적 상황을 살펴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냉전, 경제위기, 국가의 채무급증, 성인 문해 프로그램의 구조적 조정, 사회사업 침체, 시장과 기술의 세계화, 사유화, 빈약한 예산, 가난과 실직 증대 등의 여파로 성인문해교육이 약화되었다(Lind, 2008). 미국과 서구가 주도하던 국제질서를 성토하는 제삼세계의 입장이 강해짐에 따라 미국과 영국의 유네스코 탈퇴, 예산동결, 인력삭감 등으로 실제 문해교육이 실행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이 시기를 NATO(No Action Talk Only)

라고 하였다(이승환, 2009).

1985년 Paris 회의에서는 Elsinore나 Montreal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인 비문해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기초문해 뿐만 아니라 문화나 기술문해로까지 확대되었다. 제4차 회의에서는 특히 학습권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26조의 교육권, 1975년 ‘Persepolis 선언’의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1976년 Nairobi의 ‘성인학습의 발전에 대한 권리’를 통해 발전되어 온 것으로 학습자의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UNESCO, 1985). 학습권 선언은 여성 차별의 철폐나 장애자의 권리, 만인을 위한 교육, 문해 선언 등으로 이어졌으며, 성인교육의 국제적인 활동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과제의 실행을 촉발시킨 역사적 문서라고 할 수 있다(이희수, 조순옥, 2005).

유네스코는 모든 사람들이 기초적 학습욕구를 만족시키도록 교육 기회부여를 위해 1990년 Jomtien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세계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f Education for All)’를 개최하고, 1990년 ‘국제문해의 해’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Lind(2008)는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던 국가에서 1990년대 동안 나타났던 성인교육과 무형식교육의 비정부화 기구화(Ngo-ization)는 Jomtien ‘모든 이를 위한 회의’의 편협한 해석으로 오히려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문해교육은 의식고양과 권한부여를 통해 학습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문해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고 평생을 통한 학습을 위한 촉매제로 여겨졌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 Delors(1996)는 21세기 위원회의 보고서 “학습: 그 안에 담긴 보물(Learning : The Treasure within)”을 통해

알기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그리고 존재를 위한 학습인 평생교육의 네 기둥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후기 산업사회, 탈복지화, 탈교육화,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실업증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 등으로 인하여 진보적 복지 국가관에 대한 환멸을 존재를 위한 학습 위에 교육의 도덕적·문화적 차원을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글로벌 시대의 교육에 대해 광의의 개념적 접근을 시도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0).

1985년 파리 학습권 선언에 이어 1997년 독일에서 개최된 제5차 CONFINTEA에서 문해는 세계의 문해와 주요 지역, 문해와 학습전략, 문해, 교육 그리고 사회발전, 문해연구, 평가 그리고 전략, 문해와 기술 등으로 토의 내용의 약 4분의 1에 이르렀다. 제4차 Paris의 학습권 선언에 이어 Hamburg 선언을 발표하였다.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인은 이제 필수조건 이상의 것으로 이는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질문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교육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그리고 집단적으로 기술과 경쟁력을 개발하고 연마할 수 있는 권리였다(UNESCO, 1997a). Hamburg 회의 선언을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듯이 유네스코는 한결같이 인간중심적 학습관을 견지하고 있으나 회를 거듭할수록 인문자유 교양 교육 위주의 교육에서 직업적 교육도 가미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한국교육개발원, 2000)고 평가하였다.

한편,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이 2000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세네갈의 Dakar에서 개최되었다. Jomtien 회의 이후의 10년을 평가하면서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할 6가지 목표를 담은

‘Dakar 실천계획’을 채택했다. 여섯 가지 목표는 취학 전 아동의 복지 및 교육의 개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무상 초등 의무 교육 달성, 성인 및 어린이를 위한 생활 기술 훈련 및 교육의 증진, 성인 문해율 50퍼센트 개선,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대한 남녀 격차 해소 및 2015년까지 교육 성 평등 달성, 모든 면에서의 교육의 질 향상 등이었다(UNESCO, 2000).

2000년 Dakar 회의의 6대 목표 중 가장 달성되지 않은 것이 문해이며, 특히 여성 비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2003년부터 2012까지를 UNLD(UN Literacy Decade: 2003-2012)로 정하여 “자유를 위한 문해(literacy for freedom)”를 위해 노력(UNESCO, 2006)하였다.

이 시기 유네스코 문해교육은 지속적인 초등교육과 성인문해사업 통합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교육’에서 ‘학습’으로의 교육의 질을 중시하게 되었다. 모든 형태의, 모든 수준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근간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기 문해교육의 태동에 이어 두 번째 단계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은 기초 인권 보장과 전 생애 필수조건 충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차 회의에서는 기초 문해 뿐만 아니라 문화나 기술 문해로까지 확대되었고, 학습권이 선언으로 여성 차별 철폐, 장애자의 권리, 만인을 위한 교육, 문해 선언으로 이어지며, 전 세계적인 과제 실행을 촉발시켰다. 또한 문해는 21세기를 위한 열쇠로 전 생애 필수조건이 되었다. 적극적 시민권과 사회에의 참여를 위해 성인 문해는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술로 이해되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다른 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술 중의 기술이

되었다.

3.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의 발전기

세 번째 단계의 유네스코 문해교육은 삶, 문화, 경제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복잡성에 대처하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제6차 회의는 2009년 브라질 Belem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를 위한 삶과 학습: 성인학습의 힘(Living and learning for a viable future: the power of adult learning)”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6차 회의의 보고서(UNESCO, 2009a)를 통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회의 목적은 성인학습과 교육을 국제교육과 발전 안전과 조화시키고 국가적 전략 내에서의 통합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세 가지 목표로는 평생학습을 이끄는 주요 성분과 요소로서 문해에 기반하여 성인학습과 교육의 인정 진흥하기, 당면 국제교육과 발전 아젠다의 구현을 위한 성인학습과 교육의 결정적 역할 부각시키기, 그리고 정치적 가속도와 몰입을 재개하고 말에서 행동을 위한 실행의 도구로 개발하기이었다. 당면 아젠다로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EFA: Education for All), 새천년 발전 목표(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유엔문해10년(UNLD: UN Literacy Decade, 2003-2012), 권한부여를 위한 문해(LIFE: Literacy Initiative for Empowerment, 2005-2014),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DESDE: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2014) 등이다. 유네스코의 유엔문해10년(UNLD)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까지 비문해율 감소라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UNESCO, 2009b).

LIFE는 전 세계 비문해 인구 중 85퍼센트가 거주하는 35개국의 문해율 50퍼센트로 증진시키고, 국가 주도적 활동을 통해 성공사례와 수범 사례로 입증된 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15년까지 초중등교육에서 여성비율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35개국에서 문해는 모든 형태의 학습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수많은 다른 분야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프로그램화하고 정책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UNESCO, 2009b). Belem 행동강령을 통해 평생학습을 향하여 성인문해, 정책, 관리, 자원, 참여, 형평에 관해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이어질 것을 제안하였다(UNESCO, 2009a). 여성, 원주민, 죄수, 농촌지역 주민의 문해 활동과 국제지표와 목표를 개발하며, 각국의 문해 관련 투자 및 자원의 적절성을 포함하는 진전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기초문해능력을 넘어서 평생학습으로서의 문해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번째 단계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 발전기에는 삶, 문화, 경제와 사회에서 나타나는 과제와 복잡성에 대처하는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인학습과 교육을 국제교육과 발전 조화시켜 국가적 전략 내에서 통합하기 위해 문해에 기반한 성인학습과 교육의 진흥, 당면 국제교육과 발전 아젠다의 구현, 말에서 행동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 나타났다. 특히 문해는 평생학습을 위한 주요 역량으로,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한 성인의 비문해와 성인교육에의 참여에 있어 참여목적까지 고려하며, 학습자 네트워크를 이용한 학습자 중심의 기회제공을 논의하였다. Belem 행동강령을 통해 평생학습을 향하여 성인문해, 정책, 관리, 자원, 참여, 형평에 관해 말이 아닌 실천을 제안한 것이다.

III. 마치며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CONFINTEA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통해 문해교육의 실시 배경과 각 회의 전후의 논의 내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은 생존을 위한 문해교육의 태동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문해교육의 전개기,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문해교육의 발전기의 세단계 태동과 발전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의 세 가지 함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유네스코 CONFINTEA를 통한 논의에서 문해는 국가와 사회 발전의 도구에서 점차 평생학습의 필수요소로 변화하였다. 초기 문해교육은 제2차 대전 이후 국가 재건과 세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국가나 국제기구의 주도 하에 읽고 쓰기 정도의 기초문해와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강조한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빠른 경제 회복과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국가나 지역마다 요구하는 정도와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었고, 문해의 개념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Tokyo 선언에서 평생학습의 핵심으로 문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학습권의 제1권리로 선언되었다. 문해는 점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으로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 내재하는 모순에 대해 비판적 세상읽기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유네스코 CONFINTEA를 통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논의에서 형평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성인비문해자는 대부분 가난과 언어, 거리상의 이유로 비문해자가 되었음을 인지하였

다. 가난하여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경우,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그 나라 언어를 모르거나 국어가 여러 가지라서 배우기 어려운 경우, 거리상의 이유 등을 고려한 학습자원의 접근을 논의하였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원주민과 주류 시민 사회의 참여, 여성·빈곤층·원주민·수감자를 아우르는 문해 실천을 위해 빈곤층의 정부지원 무료수강이나 수업료/비용 감면, 유급휴가 등 우대 정책에 관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유네스코 CONFINTEA는 진실한 대화로 성인문해교육의 담론을 형성하고 있었다. 초기 회의에서는 문해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강조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학습이 필요하며, 특히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문해가 논의되었다. 이후 문해는 각국에서 성인교육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요소로 평생학습의 핵심이 되었다. 비문해는 읽고 쓰기 기술의 부족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구어 문화에서 글로 쓰여진 단어의 문화로의 이동이나 기능적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성인과 공존하는 새로운 지식이 있는 곳의 문화적 맥락에서 문해가 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필수조건 이상의 것으로 기초문해 뿐만 아니라 문화나 기술 문해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는 모든 단계에서 학습기회를 갖도록 하는 필수적 조건이며 교육권으로서 개인, 사회, 정치적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고 개인역량에 있어 필수적 요인으로 선언되었다. 이러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담론은 시대적 필요와 인식, 그리고 파악하고 해독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네스코의 문해교육의 변천과정에서 볼 때, 문해는 달성되어야 할 최종의 목표를 넘어서 개인 학습자의 자유롭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의 과정이며, 학습자가 속한 일상의 생활에서 힘을 기르기 위한 것임을 의미하였다.

참고문헌

- 김중서, 김승한, 황종건, 정지웅, 김신일(1987). **평생교육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무근(2001). 국제기구의 평생교육 정책동향 및 발전모델 비교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승환(2009). 인권으로서 교육권 수호에 관한 연구: 유네스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수(2005). 현대지식사회에서 문해교육의 의미와 전망. **한국의 문해교육**. 한국문해교육협회. 서울: 문음사.
- 이희수, 조순옥(2005).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회의가 평생교육 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11(1), 115-144.
- 조미경(2012). 유네스코의 비판적 성인문해교육 변천과정 및 동향 분석.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00). 평생학습지원체제 종합 발전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승희(2005).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Bataille, L.(1976). *A turning point for literacy: adult education for development the spirit and declaration of Persepolis*. New York: Pergamon Press Inc.
- Delor, E.(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for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 Freire(1985). *The politics of education: Culture, power and liberation*. translated by Macedo, D.(1985). South Hadley, Massachusetts: Bergin & Garvey Publishers, Inc.
- Jones, P. W.(1988). *International Policies for Third World Education: UNESCO Literacy and Development*. London: Routledge.
- Lind, A.(2008). Literacy for all: Making a difference. Paris: UNESCO.
- Rahnema, M.(1975). Literacy: for reading the word or the world? in *A turning point for literacy*: written by Bataille, L.. New York : Pergamon Press Inc.
- UNESCO(1947). Fundamental education: common ground for all peoples. Paris: UNESCO.
- _____(1949). Summary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accessed Apr. 11th, 2010 t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7/000712/071263fo.pdf>.
- _____(1960). Final report: World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accessed Apr. 11th, 2010 t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2/000245/024536fb.pdf>.
- UNESCO(1965). Draft outline for a guide on the evaluation of experimental projects in the world literacy programme. Paris: UNESCO.
- _____(1972). Final report: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accessed Apr. 11th, 2010 t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0/000017/001761fo.pdf>.
- _____(1975). International symposium for literacy. Paris: UNESCO.
- _____(1985). Final report: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accessed Apr. 11th, 2010 t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6/000661/066114e.pdf>
- UNESCO(1997a). Final report :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Paris: UNESCO. accessed Apr. 11th, 2010 t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1/001103/110364e.pdf>.
- _____(1997b). 50 Years for education. Paris: UNESCO.
- _____(2000).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Paris: UNESCO.

- _____(2006).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Literacy for life. Paris: UNESCO.
- _____(2009a). Final report: 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ult education. Hamburg: UIL. accessed Apr. 11th, 2010 to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8/001877/187790e.pdf>.
- UNESCO(2009b). A review of LIFE 2006-2009. Hamburg: UIL.
- _____(2010).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Reaching the marginalized. Paris: UNESCO.
- WCEFA(1990). Final report: World conference on education for all. Paris: UNESCO.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Literacy Education in UNESCO

Cho, Migyoung

(Inviting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iteracy education in UNESCO from its foundation to Belem CONFINTEA, 2009.

This study would have three implications as followings: first, literacy has been turned into gradually from an instrument for social and national development to the essential elements for lifelong learning. Second, UNESCO was trying to provide equitable learning chances for literacy education to the undeveloped countries. Third, there were discourses for adult literacy education through many policies, especially CONFINTEAs.

Key words : UNESCO, CONFINTEA, literacy education, right to learn, social empowerment

투고신청일 : 2014. 05. 26

심사수정일 : 2014. 06. 12

게재확정일 : 2014. 06. 23